

글로벌 '메드라인' 광주에 공장 건립



윤장현 광주시장이 3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출판기념회를 갖고 '광주형 일자리'를 강조하면서 글로벌 기업 '메드라인' 공장을 광주로 유치한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100년 전 '녹색 수송복'을 탄생시킨 연매출 10조원 규모의 글로벌 의료기업 '메드라인(Medline)'이 광주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 전문 인

빛그린산단 4월초 첫삽...연내 본격 운영 일자리 350개...“亞 진출 교두보 삼겠다”

패키징 공정을 처리할 공장을 짓기로 하고 4월초 첫삽을 떠 올해 말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메드라인은 일자리 350개를 새로 만들 예정이며, 이곳에서 공정을 마친 의료용품들은 국내외 해외 의료기관 등에 공급된다.

미국 일리노이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메드라인은 연매출 92억 달러(한화 10조원 규모)에 이르는 글로벌 기업으로 세계 90개 국에서 비즈니스를 실행 중이며, 고용 직원이 1만5000명에 달한다.

또 지난해 미국 경제지 '포브스' 선정 미국 비상장기업 2위에 오르기도 했다.

메드라인의 광주행은 의사 출신인 윤장현 시장의 시장철학이 기업의 경영 비전과 맞닿아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메드라인 한국법인 관계자는 "한국 공장 설립을 위해 후보지로 여러 곳 검토하고 최종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광주가 새로운 변수가 됐다"며 "인간 존엄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윤 시장의 노력이 매력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를 아시아권 시장의 본격적인 진입을 위한 교두보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시장은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환경이 자동차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를 결정하는 주요 배경이 되고 있다"며 "메드라인을 시작으로 빛그린산단이 청년 일자리 요람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은홍 기자



“꼬샤꼬샤 배즙’ 드셔보세요”

광주신세계, 지역 우수 상품 판로 구축 나서

(주)광주신세계(총괄 임원 최민도)가 지하 1층 식품코너에서 우리 지역 나주, 영광에서 생산한 품질 좋은 배로 만든 꼬샤꼬샤 배즙을 선보이고 있다.

이름답게 그린 배영농조합인은 전남 지역 내6차산업 농장으로 ISO9001 품질인증을 받아 수확, 선별, 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철저하게관리하고 물, 설탕, 인공색소, 인공향료를 넣지 않고 직접 생산한 배에국내산 도라지, 홍삼등을 더해 만든 100% 착즙 쥬스 꼬샤꼬샤 배즙을 판매한다.

배 산지로 유명한 나주와 영광에서 15000평의 땅에 2대째 직접 배농사를 짓고 있는 꼬샤꼬샤 대표 김영순씨는 “제조제를 쓰지 않는 초생재배를 하고 미생물을 활용해 자체 생산한 영양제를 사

용해 재배하고 있다.또한 GAP(농수산불우수관리) 인증과 잔류농약 검사도 받았다.

엄마의 마음으로 가족에게 좋은 것만 먹고 싶은 마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고 말했다.

이번 배즙 판매와 같이 광주신세계는 지역 내 우수 중소기업과 연계하여 판로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지역 친화 상생 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지역 상품은 담양 한과, 영광 굴비, 완도 전복, 장흥 표고 등이다.

2월 14일까지 판매하는 꼬샤꼬샤 배즙은 인기 상품인 도라지배즙이 50포에 28,000원, 홍삼배즙이 30포에 39,000원이다.

김연숙 기자

롯데百, 김영란법 개정으로 농·축·수 신선 선물세트 매출 증가

청탁 금지법 선물 상한액 10만원으로 개정 호응

부정 청탁 금지법 선물 상한액 개정으로 인해 선물세트 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이 선물세트 본 판매를 시작한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1일까지 선물세트 판매 실적을 살펴보니 전년 동기 대비 15.9% 증가했다. 특히 전통적인 신선식품 선물세트 매출이 전체 실적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해당 기간 동안 농산 선물세트가 15.3%, 수산이 19.9%, 축산이 14.3% 신장했으며, 이러한 신선식품 선물세트 실적 호조는 부정 청탁 금지법 선물 상한액이 농·

축·수산물 에 한해 10만원으로 개정되며 선물세트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롯데백화점은 이번 설 선물세트에서 10만원 이하의 상품 구성을 15% 이상 구성했으며, 10만원 이하 농·축·수산물 선물세트의 품목 수를 지난 해 대비 30% 가량 늘린 450여 개를 준비했다.

이러한 10만원 이하 농·축·수산물 선물세트는 고객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롯데백화점이 이번 명절을 맞아 9만9000원에 구성한 '1등급 한우 정육 선물세트(2kg)', 합리적인 가



격에 구성해 10만원에 판매 중인 '영광 방성포 알뜰 굴비세트', 8만 9000원으로 준비한 '롯데 상주꽃감 프리미엄 2호' 등은 모두 준비 물량의 60% 가량이 소진됐다.

또한, 10만원 이하 축산 선물세트는 95.7%, 농산 선물세트는 37.4%, 수산 선물세트는 70.2%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증가하는 등 청탁 금지법 선물 상한액 개정에 따른 효과가 뚜렷히 나타나고 있다.

롯데마트 역시 지난 12월21일부터 2월1일까지 설 선물세트 사전 예약 판매 기간에 매출을 살펴보니,

전년 동기 대비 16.2%가 증가했으며 특히 과일 선물세트가 10.7%, 축산 선물세트가 31.8%, 수산 선물세트가 12.8% 늘어나는 등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매출이 신장했다.

롯데백화점 임태춘 식품부문장은 "이번 설은 10만원 이하 국내산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 수요가 높은 것이 특징"이라며, "늘어나는 고객 수요를 고려해 설 명절 전까지 강원도의 우수한 특산물을 비롯해 보다 다양한 선물세트들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문콕’ 방지법, 주차공간 2.3→2.5m 확대

내년 3월 시행

차 문을 열다가 옆차를 손상시키는 '문콕'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를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년 3월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형 주차장 폭 최소 기준을 2.3m에서 2.5m로 확대한다. 일반형의 경우, 대상 차종은 중형 및 중형 SUV다.

확장형 주차장도 2.5m(너비)X 5.1m(길이)에서 2.6m(너비)X 5.2m(길이)로 확대한다. 대상차종은 대형·대형SUV·승합차·소형트럭이다.

문콕 사고는 2014년 약 2200건(보험청구 기준)에서 2015년 약 2600건, 2016년 약 3400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다만 이미 추진 중인 사업 피해와 업무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시기를 1년 조정했다.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구조적으로 확장이 어려운 사업에는 적용을 강제하지 않는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3월 전 건축법상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도 건축물 구조상 기둥과 기둥 또는 기둥과 벽 사이에 주차단위구획이 위치해 확대가 어려운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오늘 Lotto 제 792회차 당첨결과 (2018년 2월 3일 추첨)

2 7 19 25 29 36 + 16

순위	당첨개수	1인당 당첨금액	당첨기준
1등	7	2,655,736,768원	당첨번호 6개 숫자 일치
2등	65	47,667,071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보너스 숫자 일치
3등	1,958	1,582,411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
4등	99,185	50,000원	당첨번호 4개 숫자 일치
5등	1,684,675	5,000원	당첨번호 3개 숫자 일치

당첨금 지급기한: 지급계시일로부터 1년 휴일인 경우 익일인일)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